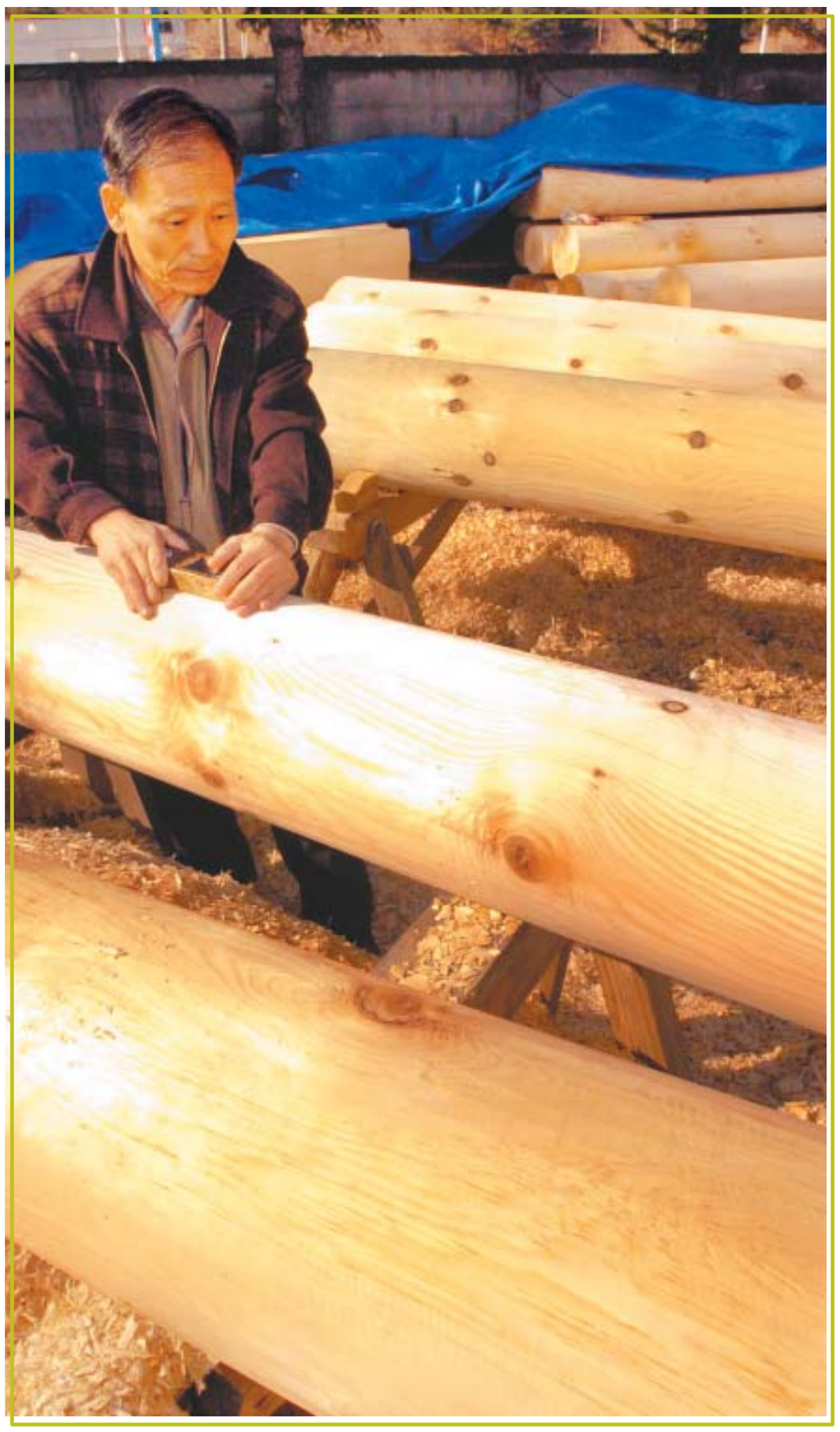
뷥뷥뷦뿻-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5>

제36호 대목장(도편수) 장 효 순씨

터를 파고 바닥을 다지며 기둥을 쌓아 올린다. 지붕은 마치 제비가 날아가는 모양이다.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은 그 모양 또한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하나 하나의 공정도 허투로 하지 않는 장인이 있기에 세계 제일로 평가받는다.

‘한옥의 곡선 美學’

21세기 도편수가 잇는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6호 대목장(大木匠) 장효순씨(66·이천시 마장면 해월1리)는 요즘말로 건축가다. 일종의 시공사 총책임자로 조선시대에는 도(都)편수라 불렸다.

“지을 집의 법식을 정하고 일을 분담하는가 하면 기법을 지도하죠. 그야말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일생을 바쳐야 할 수 있습니다.”

대목은 궁궐이나 사찰, 가옥과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며 문짝이나 반자, 난간과 같은 사소한 목공을 맡는 소목(小木)과 대비된다. 쉽게 말해 대목은 하드웨어, 소목은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것. 또 대목이든 소목이든 나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이들을 통틀어 목수(木手) 또는 목장(木匠)이라고도 칭한다.

장씨는 그의 나이 23세때부터 대목일에 손을 댔다. 물론 어렸을적부터 소목과 같은 나무일을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부친을 따라나서며 부터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주로 사찰들이었죠. 법당이나 요채 등을 짓거나 어떤때는 암자 전체를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건물 수만 따진다면 100여채는 족히 넘을 겁니다.”

부친 故 장조웅에 전수…사찰건물 100여채 완성

43년 외길… “아버지의 장인 정신 잇는 게 중요”

장씨의 아버지는 故장조웅씨(98년 작고)로 우리나라 대목의 그야말로 ‘대목’이었다. 1931년, 당시 수덕사 법당 중수증에 있던 대목장 故김덕희를 만나면서 대목과 연을 맺고는 한 시대를 풍미했다. 고집스러움과 꼼꼼함으로 무장해 섬세한 대목을 자랑하며 수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장영근이나 김충일, 김윤원, 이주탁, 반상천, 이종문 등이 모두 그의 문하생이었으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흥수와 최영일도 배출했다.

부친의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장씨. 정작 아들인 그가 인간문화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의연하다.

“글쎄요…. 아버지께서 워낙 그러셨어요. 감투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고 가업으로서, 장인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씨는 부친이 썼던 공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단다. 지금은 연장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옛 것이지만 보물1호로 집에 고이 보관하고 있었다. 부친과 참여했던 수덕사 복원공사에 쓰인 도면도 마찬가지. 부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처음 7년동안은 아들이란 멍에(?)때문에 돈 한 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기술 전수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다. 다만 옆에 붙어다니며 대목에 관한 철저한 마인드를 이어받았다.

“한 번은 기둥까지 올라간 건물을 모두 헐고 새로 시작하라 하시더군요. 마음에 안드신게죠. 일 하는 사람들이야 반가울리 없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모두들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이때 뭐라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아, 저런거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씨의 작업장은 현재 이천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은 온통 나무와 숲을 이루고 있다. 건물을 짓는데 무슨 작업장이 필요하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연유가 있다. 다름아닌 소음때문. 요즘은 도시뿐 아니라 산자락에 건물을 짓더라도 나무를 깎고 패는 소리에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다.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모두 작업한 뒤 현장으로 운반한다. 일종의 조립식인 셈이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현재는 6명의 동료와 함께 하고 있으며 주로 사찰 건물을 짓고 있다. 인천의 보각선원이나 주문진의 구월사 등에 세운 법당을 만족해 한다는 장씨. 94년에는 모 시공사가 경주에 신라시대의 건축양식에 따라 옛 가옥을 형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 맡았던것만 무려 129동.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지만 사찰이나 문화재 복원 등에 많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청탁하면 무조건 맡진 않아요.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턱 없이 부족한 자제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땐 단호히 거부합니다.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거나 옛 양식을 거스르고 그럴듯하게만 지어달라는 말은 절대 사양입니다.”

사찰·문화재 복원 참여…경주 한옥마을 129동 지어

“옛 양식 거스르며 겉모양만 그럴듯한 청탁은 거절”

사찰 대목의 기준은 포에 있다. 한옥의 기초라 불리는 화반집, 주삼포, 가진주삼포, 오포·칠포·구포집 등으로 나뉜다. 이는 지붕을 얹기 전 건물 몸체 위에 올려지는 ‘ㅂ’자 모양의 틀로 많아질 수록 곡선의 미가 살아나고 가치 또한 깊어진다.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지붕 곡선이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 특징은 바로 곡선입니다. 일본것은 너무 직선적이고 중국것은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휜듯 하지만 바르고 뻗어나가는 곡선의 미가 살아야 제대로된 우리 것이죠.”

요즘 장씨의 눈가에는 점점 주름이 늘어나고 있다. 나이탓도 있지만 이보다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것 뿐 아니라 금새 자만에 빠진단다. 일례로 대목은 최소 10년이 넘어야 몸에 배는 법인데 1~2년 하고 대우해 달라거나 아니면 나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가방 끈 길다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막상 일을 시켜보면 아니란 생각도 든다. 그나마 점쳐둔 후계자가 둘이 있어 다행이다.

“아까 도편수라 말씀 드렸죠? 대목에선 거의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가 된 듯한 양상입니다. 도편수가 일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간 다 팽개치고 그냥 나가버리죠.”

쓴 웃음 짓는 얼굴에는 회한이 가득하지만 어둡지 않다. 엄지와 중지의 손가락이 한마디씩 잘려나간 오른손은 거칠어 보이지만 부드럽다. 겉 모습은 여느 노인과 같으면서도 눈 속 깊은 곳에 서린 인자함은 포근하다. 그래서 일까. 사찰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그의 모습을 닮았다.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大木匠은 투철한 自我 실현의 길

장효순씨는 전국을 돌며 대목을 맡는 만큼 독특한 일화 또한 많이 갖고 있다. 그중 불교 외에 종교적 색채가 강한 건물을 지을때 생기는 일들은 그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81년도에는 일명 ‘도를 아십니까’로 대변되는 모 단체의 건물을 지은적이 있는데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이 뻗쳐 왔다고 한다. 입도를 하라는 것. 그 단체에 대한 평가를 떠나 유혹의 움직임이 어찌나 강했던지 아찔하다고 상기한다. 일례로, 데리고 간 일꾼들 대부분은 결국 거기에 빠져버렸다.

모 종교단체 건물공사 내내

‘入道’ 유혹 수차례 뿌리쳐…

실평수 100여평 남짓한 부지에 겉에서 봤을 땐 2층이지만 실내는 3층인, 건물만 놓고 본다면 꽤 괜찮은 작업이었지만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량식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완성될 때 쯤 그걸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더라구요. 보통 사찰 같은 경우 200~300만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 거긴 3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차로 현금을 싣어 옮기는데도 오래 걸리던데요.”

또 대구에서의 일이다. 옥황상제와 단군, 석가모니불의 벽화를 모신 모 단체는 8개월 가량 그에게 끊임 없이 입도를 권유했다. ‘건물이나 완성된 뒤 생각해 보겠다’며 빠져 나왔다는 장씨.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상기하는 표정은 황당함이 역력했다.

대목장으로 굳은 의지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투철한 자아가 있었기에 그 자극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고 해석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